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한 공동체가 근린관계에 미치는 영향 - 목동 'The Sharp' 공동주택 중심으로

김성길*

¹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The Effect of Internet Community on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 - Case study of Mokdong 'The Sharp' apartment area

Sung-Gil Kim¹

¹Division of Civil and Construc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케이션 수단으로 채팅, 게시판 카페 등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근린공동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근린관계의 다양한 요소를 도출하여 주민들의 근린관계 의식 및 공동체적 활동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관찰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근린관계특성을 비교분석하였고 근린 공동체관계에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이웃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정보 등을 원활히 교류할 수 있어 주거단지 내 근린관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공동주택 내 단절되어 가는 이웃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공동주택 내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향후연구에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online community, such as chatting, book-cafe on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 Through a case study of 'The Sharp' apartment area, the characters of neighborhood relationship between user and non-user were compar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ommunity relationships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sidents using the online community shared their emotions, thoughts and information with their neighbors so that the level of neighborhood relationship was higher. To reprove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 being cut off the online community should be handl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lanning of apartments. This study as a basic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ing against crimes and accidents in apartments.

Keywords : factor analysis, neighborhood relationship, online community, questionnaire survey, regression analysis

1. 서론

우리나라의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은 형태적 측면과 다양한 서비스제공에서의 편리성 및 효율성으로 인해 단순한 도시의 상징적 의미가 아닌 가장 일반적인 주거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급속도

로 진행된 도시화와 관련된 공동주택의 획일화된 공급은 인간관계의 경직화, 유대감의 상실 등과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되었다. 공동주택에서의 근린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내의 공동체(community)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

*Corresponding Author : Sung-Gil Kim(Kongju National Univ.)

Tel: +82-41-521-9319 email: sgkim@kongju.ac.kr

Received November 30, 2015

Revised (1st December 15, 2015, 2nd December 28, 2015)

Accepted February 4,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져 가고 있다. 한편, 현대의 주거공간속에 스며들어 있는 정보통신망기술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삶을 융합하고 기존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공동체 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기술과 공동체 그리고 근린관계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커뮤니티가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근린관계의 활성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이용행태가 주민의 근린관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주민과 비이용 주민의 근린관계 수준에 대한 차이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주민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서 대전에 있는 한 공동주택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찰조사를 통해 정성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비이용자에 대해 비교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주민의 근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공동체는 집단의 의식과 역사 및 가치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욕구 등을 강화시키며 의사전달을 위한 작용 및 안전과 의존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1] 윤주선과 최재필(2007)은 공동주택의 공동체는 기존 주민참여 방법으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반상회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한정된 참여폭과 시간·공간 제약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 계층의 편중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2] 홍성구(2008)는 인터넷은 손쉽게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대면접촉이나 전화통화 등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인터넷이 공동체의 형성 및 유지 혹은 사회적 자본의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하였다.[3] 우룡(2002)은 인터넷 아파트 홈페이지는 근린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할수록 근린관계는 강화 및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4]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티 형성이 구성원들로 하여 공동체적 의식 및 활동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주거지역에서도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대상을 인터넷 내 커뮤니티에 국한하여 단지 정보공유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등 근린관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요인들의 분석에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동주택에서의 근린관계의 다양한 요소를 도출하여 주민들이 생각하는 근린관계 의식 및 공동체적 활동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근린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3. 온라인 커뮤니티와 근린관계 분석

3.1 분석내용

연구대상지는 대전시 중구 목동에 위치한 '더 샵(The #)' 공동주택단지로서 101동부터 109동까지 총 9개 동으로 건설되었다. 이 공동주택단지는 2010년에 입주를 시작한 분양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 이전에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입주를 고려하는 주민의 정착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연구의 정성적 내용 분석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일인 2007년 7월부터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참여자간에 어떠한 근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운영방식과 상호작용의 유형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검사의 목적과 취지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stration method)에 의해 각 질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문 부수는 180부의 설문지를 배포, 일반적인 내용에 무응답이 없는 150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설문

지의 구성은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에 대하여 묻는 항목과 각 항목의 만족수준을 7점 리커트(Likert)로 이루어졌고 이 설문자료들은 근린관계 요인을 나타내는 인자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인자들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온라인의 이용정도, 주거단지 내 활동과 커뮤니티 정도, 환경 및 인식 수준의 깊이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거단지 내 이웃과의 관계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유의수준 10%)을 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비이용자에 대해 비교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주민의 근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Table 1. Measurement items

sort		list of measurement
independent variable	socio-economic characters	sex, age, house ownership, dwelling period, (un)married condition, education level, income
	online community activities	online community membership, number of online meeting, number of online notices, online activities
dependent variable	neighborhood relationship	intimacy with neighbors number of sports with neighbors number of meals with neighbors belonging sense to community number of hobbies with neighbors interest degree in neighbors

3.2 분석결과

3.2.1 온라인 커뮤니티 관찰분석 내용

분석대상의 게시판 글은 총 2,852개였으며 그중 입주자 전용 게시판과 정보, 자료실 게시판을 중점으로 관찰 조사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을 추출한 결과, 정보의 공유, 근린관계 유지, 이웃간의 교류활동, 공동체적 관리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정보의 공유는 입주 정보, 하자보수 관련 정보, 면적별 차이점, 단지 내 관련 정보나 생활정보에 해당하며, 근린관계 유지로는 인사나 안부의 표현, 개인적 감정의 표현, 개인사, 소식 등에 관련하여 게시된 글로써 관찰되었다. 이웃 간의 교류활동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지 내의 종합적 활동과 이웃들 간 관계에 대한 표현, 묻고 답하기, 대화, 단지 내 공동체적 감정표현에 해당하였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관리의 주거단지 내 건의사항의 표현과 입주민 간의 규범 및 규율의 형성, 단지 내 공적사안에 대한 의견교환, 주민 간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관찰되었다.

Table 2. Interaction of online community

sort	contents
information of residential area	residential instruction/moving in information/ stories by block/construction process situation
information of life	art concert/ finance, garbage collection/ real state&law
self-governing	activities by block/ Q&A/ the others
online public opinion plaza	interest/education/chatting room
hobby-club	individual · family/football, tennis etc.
marketplace	help · situation-wanted column/ flea · barter market/the others
advertising information	neighbor store/ education · administration/ hospital
recommendations	inconvenient item, proposal subject
system administrator	announcement list/ noticeboard

3.2.2 일반 조사 내용

Table 3.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sort	frequency (person)	ratio (%)
sex	male	70	46.7
	female	80	53.3
age	less than 20	4	2.7
	20 ~ 29	32	21.3
	30 ~ 29	34	22.7
	40 ~ 49	43	28.7
	50 ~ 59	24	22.0
	more than 60	4	2.6
job	self-employment	23	15.3
	manufacturing labor	4	2.7
	sale/service	18	12.0
	office job	30	20.0
	specialized job	13	8.7
	housewife	41	27.3
	student	21	14.0
scholarship	graduate from middle school	2	1.3
	graduate from high school	40	26.7
	attendance at college	20	13.3
	graduate from college	73	48.7
	from or at grad school	15	10.0
income	100 ~ 200 million won	2	1.3
	200 ~ 300 million won	18	12.0
	300 ~ 400 million won	54	36.0
	400 ~ 500 million won	38	25.3
	500 ~ 1,000 million won	31	20.7
more than 1,000 million	7	4.7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자의 수는 150명으로 남성 70명(46.7%)과 여성 80명(53.3%)으로 구성되었다. 이용자들의 나이별 분포를 살펴보면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각각 4명(2.7%)이며 20~29세는 32명(21.3%), 30~39세는 34명(22.7%), 40~49세는 43명(28.7%), 50~59세 33명(22.0%)으로 20대에서 50대 연령대가 균등하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직업별 분포는 주부 41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30명(20.0%), 자영업 23명(15.3%), 학생이 21명(14.0%), 판매·서비스업 18명(12.0%), 전문직 13명(8.7%), 생산·노무직 4명(2.7%) 순으로 나타났다.

3.2.3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비이용별 활동수준 평균비교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단지 내 활동에 대한 리커트 점수의 평균은 3.90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의 단지 내 활동 평균은 4.56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보다 이용하는 주민의 단지 내 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웃 간의 교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이웃 간 교류 평균은 2.94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의 이웃 간 교류 평균은 4.04점으로 온라인을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웃 간의 교류 정도가 1.1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mparison between user and non-user of online community

sort	user	non-user
activity	4.56	3.90
exchange	4.04	2.94

Table 5. T-test of difference between user and non-user

		equal variances test of Levene		T-test
		F	significant probability	significant probability
activity	equal variances assumed	5.274	0.037	0.032
	equal variances not assumed			-
exchange	equal variances assumed	2.203	0.102	-
	equal variances not assumed			0.020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하지 않은

주민간의 단지내 활동과 이웃간 교류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먼저,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단지내 활동의 평균 점수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이 $0.037 < 0.05$ 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됨(equal variances assumed)의 자료를 이용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양쪽)이 $0.032 < 0.05$ 이므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하지 않는 주민과의 단지내 활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어서 주민간 교류의 평균점수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확률이 $0.102 < 0.05$ 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됨의 자료를 이용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양쪽)이 $0.020 < 0.05$ 이므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하지 않는 주민과의 이웃간 교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3.2.4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근린관계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온라인을 매개로한 공동체 활동이 주민들의 근린관계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첫 번째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에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만 포함시켜 분석을 수행하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시킴으로써,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MME(mean square error)에 영향받는 수정된 R^2 즉, 독립변수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설명력을 나타내는 \bar{R}^2 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실제로 커뮤니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인 성별, 나이, 거주기간, 직업, 소득만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근린관계 수준에 대한 모형은 전체 25.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된 독립변수 중 성별, 나이,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고 여성이며 소득이 적은 주민들의 근린관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성별, 연령, 수입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근린관계의 주요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와도 부합하였다.

Table 6. Influence analysis of factors on neighborhood

	Model1 (non-use group)				Model2 (use group)					
	B	β	t	significant probability	B	β	t	significant probability	tolerance limit	VIF
Constant	2.505		1.717		.612		.674			
Sex	-.254*	-.112	-1.175	.088	-.196*	-.080	-1.094	.096	.811	1.232
Age	.040**	.361	3.028	.003	.028**	.256	3.236	.002	.749	1.335
Dwelling-period	.166	.109	1.179	.242	.132	.087	1.188	.237	.884	1.132
Job	-.050	-.081	-.917	.398	-.062	-.100	-1.277	.204	.771	1.298
Income	-.119*	-.108	-1.359	.078	-.182*	-.165	-2.291	.023	.909	1.100
Membership of online community					.334*	.132	1.660	.099	.741	1.349
Meetings of online community					.458*	.171	2.229	.027	.796	1.257
Notice of online community					.150*	.153	1.820	.071	.662	1.510
average activity of online community					.544***	.362	4.743	.000	.796	1.257
R^2					.476					
Adjusted R^2					.407					

이어서 두 번째 모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항목과 온라인 커뮤니티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설명력이 40.7%로 나타났으며 나이와 성별, 소득, 연구대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여부, 온라인 커뮤니티 정기모임이나 소모임 참여정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글의 정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의 평균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근린관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T값에 대한 유의확률 값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여부는 0.099,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모임 참여정도는 0.027,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글의 정도는 0.071,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의 평균수준은 0.000으로 이 독립변수들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요인만 투입되었을 때의 결과값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항목을 나타내는 지표를 독립변수에 추가한 두 번째 모형이 40.7% 설명력을 가짐으로 23.2% 설명력을 가지는 첫 번째 모형보다 설명력이 17.5% 더 높았다. 본 연구의 Durbin-Watson 값은 1.969, Cronbach's α 값은 0.723으로 각 관측치의 분산들 간의 독립성 가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주민이 가입을 하지 않은 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애착감이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소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단지내 주민의 감정 또는 관심을 활발하게 하여 근린관계 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나이가 많고 성별이 여자이며, 소득이 적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정도가 깊을수록 주민의 근린관계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 단지 내 종합적 정보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개인의 기호나 성향이 유동적이고 사회적 의존이 비교적 낮고 고소득자의 주민보다 소득이 적은 주민의 근린관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비이용에 따른 활동수준을 리커트 점수로 나타내 평균을 비교한 결과와 연계하였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은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 비하여 이웃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원활히 교류하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거에 대한 종합적 정보에 있어서 쉽고 편리하게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으로 작용하여 주거단지 내 근린관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근린관계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공동주택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활동이 주민들의 근린관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전시 중구 목동에 위치한 '더 샵(The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거주민의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적 활동과 이웃 간의 교류 및 환경, 인식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이 소모임이나 취미활동 같은 다양한 공동체적 활동을 보다 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결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주민의 단지 내 활동 평균 점수가 0.66점 더 높았고, 이웃 간의 교류 평균점수 역시 1.1점 더 높았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주민들의 근린관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17.5%의 설명력에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근린관계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이 높을수록 근린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소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단지내 주민의 감정 또는 관심을 활발하게 하여 근린관계 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생적으로 사회적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긍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와 계획이 도입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나 주민참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으로서 건설되기 수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관찰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 조건으로 인해 한 공동주택단지만 분석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사례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 이웃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에 대한 향후연구과제가 기대된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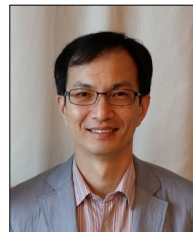
[1] S. B. Park, "An Exploratory study on online community attachment: Focused on the analysis of offline flash

gathering", Journal of Korea Regional Communication Research Association, Vol. 6, No. 3, pp.179-203, 2006.

- [2] Z. S. Yoon, J. P. Choi, "A Preliminary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Neighborhood Architect on "Machizukuri" through Apartment Cyber Communiti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7, No. 1, p.138, 2008.
- [3] S. G. Hong,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partment Community with Online Community as a Medium", Journal of Korea Regional Communication Research Association, Vol. 9, No. 1, p.277, 2008.
- [4] R. Woo, "The Effect of Internet Apartment Homepage on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 in Apartment Complex",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ociety, No. 4, pp.93-120, 2002.
- [5] Y. H. Hwang, Y. H. Cho, "The Influence of On-line Community's Functions on Members' Attitude toward the Community and Off-line Meeting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Vol. 17, No. 4, pp.141-107, 2005.

김 성 길(Sung-Gil Kim)

[정회원]



- 1990년 8월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도시공학전공 (공학석사)
- 2003년 12월 : 독일 함부르크공대, 도시및교통계획 (공학박사)
- 1991년 6월 ~ 1993년 2월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 1999년 10월 ~ 2004년 6월 : 독일 함부르크공대 주거-교통연구소(ECTIL) 객원연구원

- 2004년 12월 ~ 2005년 2월 : 한국교통연구원(KOTI) 책임연구원
- 200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공학전공 교수

<관심분야>

Smart-City, Big-Data